

# 정읍시, 전북 첫 환경교육 시범도시

## 3년간 환경 교육 기반 강화·지역에 맞는 모델 구축 컨설팅 지원

정읍시가 전북도 환경교육 시범도시로 선정되며 주민 자치적 환경보전 의식과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정읍시는 전북자치도가 다양한 환경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고 이후 환경교육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환경시범 도시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환경교육 시범도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경제생명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2조'와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환경보전 의식을 높

이고 지역에 맞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이 사업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계획, 실적, 기반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도시를 선정해 지원한다.

시는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지자체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또 ▲환경교육 추진 의지 ▲환경교육 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 등 평가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전북자치도 최초 환경교육 시범도시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향후 3년간(2025년~2027년) 환경교육 기반 강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모델 구축을 위한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정읍시는 앞으로도 시민 참여와 환경보전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전북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환경교육의 새로운 모범 사례를 만들겠다"며 "정읍시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환경부가 지정하는 환경교육 도시에 응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아이 함께 키워요”...고창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

## 초교 1~3학년 상시 돌봄 지원

고창군의 민선 8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산한 꿈도담터 203호점)이 개소식(사진)을 갖고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고창군은 지난 27일 고창읍 주민행복센터 3층 가족센터에서 군 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개소식을 열었다.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은 올해 신한금융 희망재단의 공동육아 나눔터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8800만원의 내부 인테리어와 기자재 지원을 받았다.

공동육아 나눔터는 총 101.45㎡ 규모로서 놀이·활동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에선 초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상시 돌봄 지원과 공동육아를 위한 돌봄 품앗이 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정의 자녀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돌봄 지원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란 게 고창군의 설명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 개소를 통해 아동 복지를 증진하고 양육자의 돌봄 부담을 더는 등 방과 후 돌봄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고창 복분자즙 등 4개 제품 할랄 인증 획득

## 식품산업연구원 농식품가공센터, 국제 경쟁력 확보·해외 진출 기회

고창식품산업연구원 농식품가공센터가 한국할랄인증원(KHA)으로부터 고창 복분자즙 등 4개 제품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이슬람 율법에 부합하는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며, 국제적 할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제품은 ▲고창 복분자즙 ▲이제부터 냉침한 진짜 오미자청 ▲이제부터 냉침한 진짜 오미자청 ▲복분자 미숙과차 등 4종이

며, 지역 기업의 수출 요구에 따라 추가로 인증 제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할랄 인증은 이슬람 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의미하며 특히 중동, 동남아시아, 북아프리카 등 할랄 시장에서 소비되는 식품에 필수적인 인증이다.

전 세계 무슬림 인구는 약 20억명으로, 이는 전 세계 인구의 약 25%를 차지한다.

할랄 식품 시장은 약 4300조원 규모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식품 시장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이번 인증을 통

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될 전망이다.

이들 제품은 지역 농가와 기업에서 원재료를 공급받아 위탁 생산되었으며, 할랄 인증을 계기로 지역 농가와의 상생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 내 업체들과 협력하여 국내 제품을 해외 시장에 연결하는 핵심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 ‘남원사랑상품권’ 다음달 한달 혜택 확대

할인율 10%→15%...구매한도 70만원→100만원

남원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한달간 남원사랑상품권의 혜택을 확대한다. (사진)

내년 1월에는 100억원의 상당의 상품권이 발행되며, 이 상품권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 구매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부정유통에 취약하고 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지류형 상품권은 종전과 같이 10% 할인 및 구매한도 최대 30만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이번 특별 혜택이 상품권의 사용을 크게 늘려 시민의 가계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명절 선물을 구입하려는 시민들이 전통

시장 찾아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별 혜택이 주어지는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앱 또는 상품권 판매 금융기관을 방문해 구매·충전할 수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이용이 편리한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의 혜택을 늘렸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 정읍시, 새만금 수질개선 2년 연속 최우수

가축분뇨·하수도 사업 등 성과...환경개선 모범 도시 주목

정읍시가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사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며 환경개선 모범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시는 새만금유역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수질개선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기관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예산집행 등 재정분야, 가축분뇨 지도점검 등 가축분야, 하수도사업 분야, 비점오염 및 주민참여 행정분야 등 5개 항목 12개 지표를 살폈다.

시는 5개 평가 항목 중 재정, 가축, 비점오염 저

감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수질개선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새만금 수질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후·폐업 축사 처리와 가축분뇨 지도점검, 주민참여 농업 비점저감 사업 신규 발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풀이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새만금유역 수질 개선을 위해 꾸준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중히 집행한 결과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그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 정읍시의회 “주민의 뜻 의회 반영 최선”

울 174건 안전 처리...행정 사무감사·현장 점검 등 활발

정읍시의회(의장 박일·사진)가 연말을 맞아 울한해 '시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정읍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 노력하는 해였다고 밝혔다.

정읍시의회는 정례회 2회, 임시회 9회 등 11차례의 의사일정을 진행하였고 조례안 121건, 승인안 24건, 결의·건의·동의안 28건, 청원 1건 등 모두 17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주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와 함께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정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및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뤄져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을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로 뛰는 의정을 진행했

다.

박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한해였지만, 정읍시의회는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했고, 언제나 시민만을 바라보며 함께 힘을 모아 위기에 지체롭게 대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도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경청하고 시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고충과 불편을 함께 나누며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데크의 세대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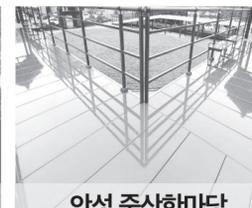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향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150900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